현대 한국어의 리듬에 관한 고찰

—세대간의 리듬 변동 현상—

이 현 복

필자는 한국어의 리듬에 관하여 몇 편의 글을 쓴 일이 있다(이현복 1965, 1973, 1974, 1982, 1985, 1986). 이들 논문에서 시도한 한국어의 리듬에 관한 기술은 모두 안정된 세대가 쓰는 표준말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이를 한국어의 표준적인 리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 안정된 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는 말의 리듬에 상당한 차이가 남을 관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세대에 따른 리듬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씨를 기준으로 하여 안정된 세대와 젊은 세대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편의상, 일반적으로 40대 이후를 안정된 세대, 그 이전을 젊은 세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리듬의 차이는 표준말 사용 지역의 세대간 뿐 아니라 방언간에도 존재한다.

이 짧은 글에서 필자는 오늘날 젊은 세대의 말씨에서 나타나는 리듬 중에서 안정된 세대의 리듬과 차이를 보이는 유형만을 추출하여 그 특징을 기술하고자 한다. 그런데 다음에 기술하는 젊은 세대의 리듬 유형이라고 하여 모든 젊은 세대에게 예외없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다만 일반적인 경향이요 추세일 따름이다. 젊은 세대 중에도 표준말 교육을 올바로 받은 사람은 안정된 세대의 표준 리듬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세대에 따른 우리말 리듬의 변동 유형을 다음에 간추려 기술한다.

1. ˈ(C)V:(C)/CV(C) → (C)V(C)/ˈCV(C)
   (표준 리듬) (젊은 세대 리듬)

이것은 첫음절에 긴 모음이 들어 있는 2-음절 및 3-음절 낱말에서 첫음절에 악센트를 두는 것이 표준적인 리듬의 유형이나 젊은 세대의 말씨에서는 두째 음절로 악센트를 이동하는 현상이다. 필자는 한국어의 "악센트"를 세기와 길이의 복합으로 본다. 따라서 악센트가 놓인 음절은 그렇지 않은 음절보다 "돋들린다"고 하는데 이는 돋들리는 음절이 구체적으로 길고 세게들린다는 뜻이다. 돋들리는 음절을 〈땅〉으로 명하고 그렇지 않은 음절을 〈디〉로 한다면 표준 리듬은 〈땅디〉로 나타낼 수 있고 젊은 세대 리듬은 〈디땅〉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두 세대 간에 정 반대의 리듬 유형을 보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리듬의 차이를 보이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표준 리듬		젊은 세대 리듬
'사:람(들)	—	사'람(들)
'시:장(에)	—	시'장(에)
'고:장(차)	—	고'장(차)
'전:화(가)	—	전'화(가)
'경:상(도)	—	경'상(도)

2. '(C)V(C)/CV(C) → (C)V(C)/'CV(C)
(표준 리듬) (젊은 세대 리듬)

이것은 1에서 기술한 내용과 유사한 경우이나 다만 첫음절 모음이 짧다. 젊은 세대는 역시 〈디땅〉의 리듬을 보인다. 보기를 들면 다음과 같다.

'방법(이)	—	방'법(이)
'신속(한)	—	신'속(한)
'정치(가)	—	정'치(가)
'성공(적)	—	성'공(적)

3. '(C)V:(C)/'CV:(C) → (C)V(C)/'CV:(C)
(표준 리듬) (젊은 세대 리듬)

첫음절과 두째 음절에 모두 긴 모음이 들어 있는 경우에 표준 리듬은 두 음절 모두가 돋들리는 〈땅-땅〉의 리듬을 보이나 젊은 세대는 두째 음절만이 돋들리는 〈디땅〉의 리듬으로 나타난다.

'제:'오:(과)	—	제'오:과
'소:'시:민(적)	—	소'시:민(적)
'비:'신:사(적)	—	비'신:사(적)

때로는 두째 음절의 홀소리마저 길이가 짧게 나는 일이 적지 않다. 즉

'소:'시:민적 — 소'시:민적 — 소'시민적
'비:'신:사적 — 비'신:사적 — 비'신사적

4. 'S:W'S:W → W'SWW (S=강음절; W=약음절)
표준 리듬 젊은 세대

이것은 4음절로 구성된 복합어(2-음절 형태소 2개로 이루어짐)의 경우에 표준 말씨에서는 1음절과 3음절이 긴 홀소리를 포함하고 있어서 돋들리고 나머지 음절은 여리게 나는 〈땅디땅디〉의 리듬을 보인다. 그러나 젊은 세대

의 말씨에서는 두째 음절만이 강화되어 돋들리고 나머지 음절은 모두 여리게 실현되어 〈디땅디디〉의 독특한 리듬을 보인다.

'예:방'주:사 — 예'방주사
'시:정'연:설 — 시'정연설
'예:비'회:담 — 예'비회담
'회:장'선:거 — 회'장선거

5. 'S:W'SW → W'SWW

이것은 4.의 경우와 유사하다. 다만 세째 음절의 홀소리는 짧으나 음절의 구조는 CVC이어야 한다. 따라서 리듬의 유형도 4와 같다.

'시:장'경제 — 시'장경제
'저:금'통장 — 저'금통장
'방:송'국장 — 방'송국장

6. WW'SW → W'SWW
표준 리듬 젊은 세대

이것은 CV로 구성된 두 개의 약음절 다음에 CVC로 구성된 강음절이 올 경우에 바로 그 강음절이 돋들리도록 발음하는 것이 표준 리듬이나 젊은 세대의 말씨에서는 처음에서 두번째 약음절로 강세가 이동한다. 따라서 리듬은 〈디디땅디〉에서 〈디땅디디〉로 변한다.

사라'진다 — 사'라진다
기다'렸다 — 기'다렸다
너머'온다 — 너'머온다

맺 음 말

위에서 기술한 세대 간의 리듬 변동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끌어 낼 수 있다. 젊은 세대의 말씨는 제 2 음절에 강세를 두어 돋들리게 발음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제 1 음절의 강세와 제 3 음절의 강세를 기피하고 제 2 음절에 강세를 이동하는 경향이 짙다. 또한 긴 홀소리를 짧게 내는 경향이 심하고 이는 바로 제 2 음절을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CV/CV/CVC/CV의 음절 구조에서 CVC 음절이 두번째의 CV음절에 강세를 넘겨 준다는 것은 젊은 세대의 제 2 음절 선호도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현상이다.

참 고 문 헌

이숭녕 (1960) '현대 서울말의 accent의 연구,' 서울대 논문집 제 9 집.

이현복 (1973) '현대 한국어의 악센트,' 문리대 학보 제19호,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

_____ (1974) '국어의 말토막과 자음의 음가,' 한글 154호.

_____ (1976) '한국어 단음절어의 억양 연구,' 언어학 제 1 호, 한국언어학회.

_____ (1976) '표준말 재사정에 따르는 문제점,' 한글 제163호.

_____ (1982) '한국어 리듬의 음성학적 연구,' 말소리 제 4 호, 대한음성학회.

_____ (1982) '속도와 리듬에 따른 말소리의 변동,' 어학연구 18권 1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_____ (1983) '한국어의 표준 발음,' 대한음성학회.

_____ (1985) 'Visi-Pitch에 의한 운율자질의 분석 고찰,' 말소리 9-10호. 대한음성학회.

정인섭 (1973) 국어 음성학 연구, 서울.

허 웅 (1985) 국어 음운학, 서울, 정음사.

Crystal, D. (1969) *Prosodic Systems and Intonation in English*, Cambridge University Press.

Kingdon, R. (1958) *The Groundwork of English Intonation*, London.

Lee, H.B. (1965) *A Study of Korean Intonation*, M.A. thesis submitted to University of London.

_____ (1986) 'Korean Prosody: Speech Rhythm and Intonation,' *Korea Journal* Vol. 27, No. 2(Special Issue on Korean Phonetics),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O'Connor, J.D. & Arnold, G.F. (1962) *Intonation of Colloquial English*, London.

Pike, K.L. (1960) *Intonation of American English*, Ann Arbor.

ABSTRACT

On the Rhythmic Patterns of Korean

Hyun-Bok Lee

The rhythmic patterns of Korean words, simple and compound, are not uniform for all Korean speakers. They differ from dialect to dialect and sometimes even between different age groups within a dialect. The standard Korean, which is spoken in and around Seoul, exhibits such rhythmic differences in words between diffrent age groups.

The aim of this paper, therefore, is to describe the rhythmic differences between the older generation of over 40 years of age and the younger generation of under 40. It has been found that the speech of the younger generation reveals a very strong tendency to put accent on the second syllable of words by weakening the first and/or third syllable, which are usually strognly stressed in the speech of the older generation.

15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